

불량魚道 정비, 지금처럼 한다면 20여년 걸린다

전남 불량어도 109곳 달하지만
올해 8억 들여 5곳 개·보수 추진
내년부터는 국비 확보도 어려워
하천 생태계 복원·다양성 위해
정부·자치단체 인식 개선 절실

전남도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수자원 보호와 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어도(魚道) 개보수가 진행중이지만 지금 속도로 정비한다면 광주·전남만 무려 140년이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천 생태계 복원 및 다양성 확보가 그만큼 더뎠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와 자치단체의 인식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광주·전남 곳곳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불량 어도' 문제<광주일보 6월 11일 1면, 12일 6면, 13일 7면, 18일 12면>를 개선하는 데 투입되는 예산 확보가 미흡해 매년 전국 20~30여곳밖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국비 확보 전망도 어두워 상당 기간 불량 어도가 방치될 것이란 우려가 되고 있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국 개·보수 대상 어도 3864곳이다. 지금까지 개보수된 어도는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288곳으로 310억원이 투입됐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올해처럼 1년에 24개 어도를 정비할 경우 3864곳 전체를 완료하는 데 161년이 걸리는 셈이다. 불량 어도를 비롯한 개보수 대상 어도가 하천 환경과 생태 통로 복원이라는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도 주변 하천 생태계 회복도 미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남도의 경우 올해 국비·지방비 총사업비 8억원을 확보, 어도 5개소의 전면 개보수에 들어간 상태로, 애초 잘못 설계된 개보수 대상이 너무 많아 제 기능을 회복하는 데 장시간 걸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지난해 기준 전남 내 '불량' 어도는 109곳으로,



장흥군 유치면 관동리 하천에 설치된 보에 어도가 설치돼있다. 해당 어도인 '관동리1 어도1'은 내부에 물이 흐르지 않고 침식 및 퇴적이 심해 개보수대상인 '불량' 판정을 받았다.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어도까지 포함하면 전체 개보수 대상은 712곳에 이른다. 마찬가지로 매년 5개씩 정비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면 '불량' 어도만 정비하는 데 22년이 걸리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142년이 걸려야 하천 생태계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어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나마 정부는 관리 주체가 지난 2015년 지자체로 이관된 점 등을 들어 내년부터 어도 개보수 관련 보조금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정부는 어도 사후관리비 명목으로 매년 3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전국 지자체에 지급해왔다.

실제로 지금까지 진행돼왔던 어도 개보수 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 분담 구조인데, 지방소멸

우려 지역이나 군 단위의 경우 자체 대응 역량이 부족해 손을 놓는 곳도 적지 않다.

전남도 관계자는 “어도는 주민 체감도가 낮고 가시적 효과도 적어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려왔다”며 “열악한 재정 여건상 국비 없이는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말했다.

어도 설치 1곳당 개보수 사업비도 과거 10년 넘게 1억2500만원에 묶여 있었다. 구조물 낙차와 유입 수량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면 실제 공사비는 천차만별인데도, 일률적으로 책정되는 모순 행정이 지속돼왔다는 것이다.

더디지만 불량 어도 개선도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실태 조사와 지자체 대상 홍보사업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어도 개보수 사업의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도 지역별 맞춤형 설계를 통해 실제 하천 환경에 적합한 구조개선을 추진중이다. 시공 이후에는 현장 방문을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어도 기능이 지속 유지되도록 사후관리 체계도 확대키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항우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불량 어도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어도는 생태계와 어업 기반 보호라는 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개보수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땃글로 유가족 가슴 후벼 판 죄... 벌금 3000만원

제주항공 참사 악성땃글 30대 선고

2줄 짜리 땃글로 참사 유가족 가슴을 후벼판 30대가 30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유가족 대표를 ‘가짜 유족’ 등으로 비하하는 땃글을 달아 유가족에게 2차 피해를 가한 30대에게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참사가 발생한 이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뉴스 땃글란에 올라온 관련 기사에 두 차례에 걸쳐 박한선 전 유가족협의회 대표를

비난·조롱하는 땃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박 대표가 브리핑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 땃글란에 ‘유가족대표라는 사람 진짜 유가족 맞나. 더듬어만잔당(더불어민주당 비하 표현) 권리당원 광주 지역위원회 간부가 직업이라고 대놓고 올려놔던데’라는 땃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1일에는 유가족들이 정치인에게 읍불을 표현했다는 기사 땃글란에 ‘X재명(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XX가 심어놓은 유가족 대표는 왜 그 당만 안 왔냐고 소리치더라 그 사람 찔리더니 이런 기사가 나오네’라는 땃글을 쓴 혐의로 받는다.

조사 결과 박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아니었고, 이 대표로부터 유가족 대표를 하도록 지시받아 유가족 대표가 된 사실이 없었으며 유가족 대표

에서 해임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은 국민이 함께 애도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피고인은 허위임이 분명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들면서 유가족 대표인 피해자를 비난하고 조롱했다”며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거명함으로써 허위의 사실로 이 사건을 정치화하려 한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명예훼손이자 국민이 함께해야 할 고인들에 대한 추모를 방해하는 것이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공감조차 결여된 것으로 용인될 수 없다”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그 책임에 비례하는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검찰, 신정훈 의원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구형

1심선 벌금 90만원...직위 유지

유권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신 의원에 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헌법상 선출된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잃는다.

신 의원은 지난해 3월 4일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선거구민 20여명에게 “권리당원인

제주항공 참사 백서 논란에 정준호 의원, 게시물 삭제 “의견 수렴·내용 수정 검토”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백서를 발간해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다가, 유가족으로부터 ‘유가족 입장과 동떨어진 백서’라는 항의<광주일보 6월 24일 6면>가 이어지자 관련 게시물을 삭제했다.

정 의원은 24일 오전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전남 올렸던 백서 ‘12·29 여객기 참사, 사고 현장에서의 7일’ 게시물을 삭제했다.

삭제 이전까지 해당 게시물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의 항의성 댓글이 여러 개 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 의원은 전남 참사 이후 유가족들의 일주일간 행적을 중심으로 사고 수습 과정을 담아 백서를 발간했다. 하지만 사고를 낸 항공사인 제주항공에 대한 일방적인 찬사를 적어 두고, 광주 자치구 의원에 대한 칭찬 등 내용이 무더기 포함되는 등 유가족 입장을 살피지 않은 내용이 담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현 유가족협의회 대표단 사이에서도 백서 발간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유가족과 충분한 소통 없이 백서를 내놔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준호 의원실 관계자는 “블로그 게시 이후 유가족들로부터 내용 수정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보내줘서 일단 게시물을 내리고, 의견 수렴 및 내용 수정 검토를 하고 있다”며 “재공개 여부는 유가족 단체와 협의한 이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해남군 마산면 육상풍력발전사업 사업공개 및 주민의견수렴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2 규정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행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5일

- 발전사업의 명칭
 - 마산그린풍력발전사업
- 발전사업의 위치
 - 전남 해남군 마산면 일원
- 발전사업의 면적
 - 약 130,000㎡
-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
 - 발전용량: 91MW 급
 - 설비개요: 풍력발전기(신·재생에너지)
 - 추진일정: 2029년 1월 준공 및 상업운전 개시 (개통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운영기간: 준공 후 20년
- 발전사업허가 신청자
 - 한국수력원자력㈜
- 열람장소, 의견수렴 기간 및 제출
 - 열람장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 234 트라폴리아프리카 A동 210호
 - 의견 제출기간: 주민의견 수렴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 의견 제출방법: Email 제출
 - 사업문의: 061. 357. 7501 (j0s0397@khnp.co.kr)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정병기(830826-1XXXXXX)
- 최후주소: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로 55-30, 106동 506호(삼호혁신안아파트)

피상속인 망 정병기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목표지원 2025년단10263호로 신청하여 2025년 6월 11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6월 25일

- 상속인: 이현정(740119-2XXXXXX)
광주 북구 설죽로 595, 106동 604호 (일곡동, 롯데아파트)
- 신고기간: 2025. 6. 25. ~ 2025. 9. 4.
- 채권신고처: 상속인 이현정의 주소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5. 6. 24.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자본금의 총액 금300,000,000원 중 금250,000,000원을 감소하여 자본금을 금50,000,000원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서 발행주식의 총수 보통주식 30,000주 중 주주 배수회의 보통주식 10,000주, 주주 회정의 보통주식 7,500주, 주주 회 정의 보통주식 7,500주에 대하여 각각 무상소각 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 공고의 게재일로부터 1월내에 위 주식을 본 주식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1월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함.

2025년 6월 25일

주식회사 레논이앤지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금강산로 325-9, 3호 대표이사 배승희

주목성 뛰어나 단시간내 최대의 광고효과 1일150회, 월4500회 송출 국내 최고 고품질 LED플라자 최고화질

1. 광주의 중심, 아시아문화전당지역 최대의 유동인구 밀집지역

-대전남도청 앞, 금융가, 관공서, 아파트, 상가 밀집, 주목률 최고!

2. 문화전당지구, 문화광장 이벤트 지역 인구 집중

-광주동구 문화전당 중앙부에 위치하며 통행량 및 이동의 중심에 위치
-아시아문화전당 앞 총정로 입구 공연 이벤트 등으로 인구 유입 최대

3. 높은 광고효과

-문화전당, 구도심, 아시아문화전당, 금융가, 광주광역시 최고 중심지로 이동차량 및 이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평일 출·퇴근 및 주말에 인구 유입되고 문화를 접목한 이벤트 풍성하여 광고 노출의 극대화

4. 국내외 및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광고효과

-아시아문화전당 중심지로 국내·외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동하는 최적의 장소

5. LED전광판의 특징

-반복표출을 통한 메시지 전달의 극대화, 광고주의 필요에 따라 표출 내용의 신속한 변경

광고문의. 062)220-0531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및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0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운영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봉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필 :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 1997 태림인더스트리㈜ 법인설립
- 2011 수출박람회, 수출공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모범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형 모범납세자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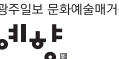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3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여행구독 220-0550